

전기차 대중화 성큼...코나 예약 1만대, 볼트 5000대 돌파

〈현대자동차〉

〈한국GM〉

올 사전 예약만 2만대... 지난해 판매량보다 46% 늘어 보조금·세제 혜택에 가격 메리트... 충전 인프라 확대도

새해 초부터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올해가 사실상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 400km에 이를 만큼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난 데다, 여전히 보조금·세제 혜택이 크고, 충전 인프라 확대 속도가 빠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기차 사전예약만 2만대...작년 판매량보다 46% ↑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 일렉트릭'(전기차)의 경우 19일 현재 1만846대의 구매 예약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15일 판매 예약이 시작된 지 불과 5일 만에 예약 대수가 1만 대를 넘어선 것이다.

작년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인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예약 판매 대수도 같은 기간(15~19일) 2천400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4개월 치 평균 판매량과 맞먹는 수량이다.

한국지엠(GM) 쉐보레의 전기차 '볼트EV'도 이미 사전계약 물량으로 확보된

5000대가 모두 예약 판매됐다. 한국GM은 당초 지난 15일 구매 예약 접수를 시작했으나 '신청 폭주'로 시스템이 다운돼 17일 오전 9시 접수를 재개했다. 이후 3시간 만에 5천 대에 대한 사전계약이 모두 완료됐다.

물론 연초 전기차 예약 대수가 최종 판매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공보(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당첨돼야 비로소 실제 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전기차 사전예약 열기나 규모, 소비자 관심 수준 등이 예년과는 확실히 더 뜨겁고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차 보급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기차 예약판매 수가 거의 2만 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수소전기차 포함 1만 3724대)를 크게 웃도는 규모"라며 "연초부터 폭발적인 전기차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000만원대 구매 가능한데다 충전 설비도 4000개로 늘어=이런 '전기차 열풍'의 배경으로는 우선 무엇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꼽힌다.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최대 출력 150kW(약 204마력)의 전용 모터가 탑재돼 아직 공식 인증 전이지만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90km 이상(자체 인증 수치)에 이른다.

2018년형 볼트EV도 고성능·경량 차체에 60kWh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갖춰 한번 충전하면 383km를 달릴 수

있다. 2018년형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주행거리도 기존 191km에서 200km 이상으로 늘었다.

전기차의 '가격 메리트(이점)'도 여전히 크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올해부터 국고로 보전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1017만~1200만원씩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나, 기아 니로, 볼트EV는 최대 보조금인 1200만원을 모두 받을



한국GM 쉐보레 전기차 '볼트EV'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보조금이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원 정액으로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200만~387만원 국고 보조금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자체가 지급하는 평균 600만원의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순수 차량·주행거리 등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1017만~1200만원씩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나, 기아 니로, 볼트EV는 최대 보조금인 1200만원을 모두 받을

동급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고 보조금은 줄었지만, 세제 혜택은 최대 130만원이나 늘어 저렴한 유지비와 함께 전기차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750기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난해 1801개로 늘었다. 올해에는 3941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20여개 신규 모델 출시”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

지난해 한국에서 6만8000대가 넘는 차를 팔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벤츠코리아가 올해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엔진+모터) 2개를 포함해 모두 20여개 신규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디미트리시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실라키스 사장은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AMG(고성능 모델)에 걸쳐 9종의 신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종을 포함해 20여개 신규 라인업(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CLS 플렉시온 모델, C클래스 부분변경 모델, 4인승 오픈탑 모델 '뉴E클래스 카브리올레'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벤츠코리아는 올해 고객 데이터 관리, 실시간 시승 예약, 재고관리, 디지털 계약·지불을 윈스톱(일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일즈 플랫폼 '세일즈 터치'를 선보인다. 이는 벤츠 커넥티드카(정보통신 연계 차량) 서비스 '메르세디스 미 커넥트' 등과 연동돼 원격 진단까지 가능하다는 게 벤츠코리아의 설명이다.



디미트리시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작년 영업 실적을 설명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벤츠코리아는 올해 국내 투자도 늘린다. 벤츠코리아 R&D(연구·개발)센터 인력을 20여명 증원해 전체 인력을 2배로 확대하고, 350억원을 들여 부품 물류센터 확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인원 50여명도 추가 고용된다.

실라키스 사장은 “한국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제휴)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을 이끌고, 업계 리더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더 뉴 E-클래스의 최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

세데스-AMG E 63 4MATIC+'를 18일자로 출시했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E 63 4MATIC+는 고성능·고효율의 파워트레인과 새롭게 개발된 가변식 사륜구동 시스템인 'AMG 퍼포먼스 4MATIC+'를 탑재해 강력한 주행 성능과 뛰어난 핸들링을 제공한다. 신규 개발·적용된 4.0ℓ V8 바이터보 엔진과 AMG 스피드시프트 멀티클러치 9단 스포츠 변속기가 결합해 최고 출력 571마력, 최대 토크 76.5kg·m의 힘을 발휘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대형차 국민차 되나... 지난해 판매 중형차 첫 추월

24만2828대 팔려 12.7% ↑

지난해 국내 차 시장에서 대형차 판매량이 중형차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중형차가 주력 모델의 노후화로 주춤한 가운데 대형차의 활약으로 대형차 판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에서 대형차(중대형차 포함)는 총 24만2828대 팔려 전년(21만5477대)보다 12.7%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6년 16.1%에서 2017년 18.7%로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차'로 불리던 중형차는 지난해 판매량이 21만1851대에 그쳐 전년(22만8633대)보다 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점유율 역시 17.0%에서 16.3%로 떨어져 대형차에 처음으로 밀렸다.

중형차는 1997년부터 계속 2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2011년까지 최다 판매 차급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2012년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

(SUV)에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13년에는 점유율이 20% 아래(17.6%)로 떨어졌고 이후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차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중대형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대형차의 작년 판매량(18만8206대)은 전년(14만3419대) 대비 31.2%나 증가했다. 점유율도 10.7%에서 14.5%로 높아졌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2011년 13.1%)을 경신한 것이자 1997년(3.4%)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커진 규모다. /연합뉴스

차수리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 쓰면 현금 받는다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쓰면 부품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모비스 같은 순정부품 제조사의 장기특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탓에 일단 수입차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특약에도 자동 가입된다.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가격의 25%(인증부품과의 차액)를 보험사가 지급한다.

인증부품은 순정부품보다 25% 정도 싸다. 순정부품이 100만 원이면 인증부품은 75만 원인 셈이다. 둘 사이에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험개발원 임주혁 자동차보험실장은 “다음달 1일부터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으로 갈아 끼우면 2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인증부품은 범퍼나 전조등처럼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 위주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만들어 대기업 부품업체로만 납품된다. 국산차 부품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독점 공급이 장기간 보장됐으며, 여기에 예외를 두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p>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2>개업·성업 안내</h2> <p>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h3>초대 화랑</h3>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p>	<h3>금강버티컬</h3>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062)514-6118, 010-5627-6119</p>	<h3>한솔도시락 서영대점</h3> <p>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기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p> <p>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062)224-7687, 010-2611-7687</p>	
<h3>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h3> <p>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p> <p>☎010-3613-3145</p>	<h3>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h3> <p>동구 밤밭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p> <p>☎062)233-9992</p>	<h3>바른글씨교정원</h3> <p>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약림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p> <p>☎062)525-9933, 010-8703-3378</p>	<h3>하안나라 운동화세탁</h3> <p>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켤레부터 수거배달"</p> <p>☎062)269-4450, 010-4607-5773</p>	<h3>금복식당</h3> <p>동구 공동 55-2(카톨릭센터 뒤) 찜탕, 계절 생선매운탕 전문</p> <p>대표 김용범 ☎062)236-3177</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h3>메타루이펜션</h3> <p>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속속 (가족탕 겸함) 담양프로방스 예약받습니다.</p> <p>☎062)464-0692</p>	<h3>청학철학원</h3>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h3>으뜸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h3>가득</h3> <p>동구 예술의길 31-16 동부고시학원 3층 뷔페백반 전문</p> <p>대표 전옥희 ☎062)222-0589</p>	<h3>무크</h3>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p> <p>☎062)370-9258</p>
<h3>양지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p> <p>대표 전병양 ☎062)263-2223</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h3>토산철학원</h3> <p>북구 두암동 예전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h3>국수나무용봉점</h3> <p>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h3>천수사백마장군</h3> <p>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보빌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로 봅니다.</p> <p>대표 허길배 ☎010-2828-2008</p>